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5월 10일(금)
(윤력 4월 3일)
Пятница
10 мая 2024 г.
№ 18 (1208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9일은 승리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불멸의 연대' 행진 참가자.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참전용사 여러분과 노동 전선 참전자 여러분!

친애하
는 동향인
여러분!
러시아
의 중요한
기념일인
승리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9년 전, 위대한 조국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
다. 우리나라는 자유와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5월
9일은 민족적 자부심과 감사한 기억의 상징이 되
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비통함으로 승리의 날을 맞이
합니다. 우리는 적을 물리친 참전용사들 앞에 고
개를 숙입니다. 노동전선에서 수고한 분들을 안아
줍니다. 그리고 전장에 영원히 남아있는 분들, 병
원에서 부상으로 사망한 분들, 수용소에서 굶주림
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 떠난 분들을 마음 아파하
며 기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특별 군
사 작전 지역에 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부와 증조
부들이 그랬듯이 모국을 수호합니다. 그리고 우리
는 승리는 다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
신합니다!

전쟁 때 전례 없는 영웅심, 나라 회복을 위
한 힘든 노고에 대해 참전용사와 후방 노동전
선의 근로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건강함
과 무병장수, 주위 사람들의 애정과 배려를 기
원합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날
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선서

지난 5월 7일(화) 현지 시간 정오 12
시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대통
령 취임식이 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으로 시작했다. 그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예스키 홀 단상 위에 놓여진 헌
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리고 취임을 선
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러시아
연방 헌법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국가
의 주권과 독립·안보, 온전성을 보호하
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
한을 행사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취임 선서를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은 러시아 국민에게 연설을 했다.

취임식장에는 정부 인사, 상하원 의
원, 외교관, 지역 수장, 종교 대표, 문화
예술 인사, 군인, 등 각계 주요 인사, 2천
600여명이 참석한 걸로 전했다. 행사에
는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 주의 사회정치인들도 참가했다.

러시아 대통령 이번 임기는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이다.

사할린 주, 특별 군사 작전지 장비 전달

사할린 주는 특별 군사 작전의 전투원들
에게 쿼드로콥터와 드론 진압 장치 등 필요한
장비를 전달했다. 이 장비는 앞으로 며칠 내에
특별 군사 작전 지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알
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화물을 군 사령부로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다.

"조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필
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러한 물품을 수집합니다. 우선, 우리는 가
정 용품, 첨단 장비, 운송 수단, 특수 장비 및
다양한 장비 등 전투원들이 직접 요청하는 것
을 구매합니다. 배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
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이 전달 물품들은 우리 대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쿼드로콥터는 경찰과 사격 교
정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 진
압 장치는 돔을 만들어 무인 항공기가 기지로
돌아가거나 떨어지는 데 사용됩니다.

검증된 장비는 강력하고 좋습니다. 첫 비
행기에 화물을 실어 보낼 겁니다. 사령관님께
서 직접 여러분과 사할린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라고 68
군단장 대령 안드레이 그레즈카 대령이 주지
사에게 전했다.

(2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예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
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전승절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는 대조국 전쟁 전승
79주년을 맞아 다양한 축하 프로그램을 준비
했다. 행사는 이미 5월 8일에 시작되었다. 이
날 전쟁 당시의 유명한 곡들을 악기 버전으
로 연주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심포니 오케
스트라의 콘서트가 승리 박물관 기념 단지에
서 열렸다. 같은 날 도시의 베레즈나키, 클류
치, 달네예, 스타로루스키 마을 문화회관들
에서 공연, 추모 행사,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5월 9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오전
9시, 슬라와(영예)광장에서 헌화식이 진행
되고 이어 10시에는 전통 군사 퍼레이드,
12시부터는 가가린 문화휴식공원에서 다
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어린이들도 시즌
개막, "전승절 축하", "승리의 5월", "승리의
노래" 등 프로그램들 진행, 군악단 및 예술
단들의 공연). 밤 8시에는 승리 광장에서 "
승리의 영광 - 조국의 영광"이 개최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성탄 성전에 은혜의 성화 도착

5월 7일, 은혜의 성화맞이 기념식이 유
즈노사할린스크 성탄 성전에서 거행되었다.

매해 은혜의 성화가 예루살렘 부활의
성전에서부터 전달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은혜의 성화를 맞이하는 기념식에 수십 명
의 정교회 성도들이 참석했다.

5월 8일, 은혜의 성화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다른 지역들에 전달되어 다음해까
지 성전에서 성화가 타오르게 된다. 정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성전에 있는 은혜의 성화
에 점화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사할린 연극단, 제 19회 전국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문화 축제에서 우승

사할린의 '테아트르 리'아마추어 연극
단(감독 리 알렉산드르)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9회 '코체비에 세베라(북방의 유목
민)' 전 러시아 북방,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소수민족 원주민 문화 축제에서 우승했다.

사할린의 연극단은 이 대회에서 리 알
렉산드르 감독이 출연한 '넵흐구'연극을 보
여주고 '연극 공연'부문에서 승리를 거머쥐
었다. 이 연극은 넵흐 민족의 동화(옛 이야
기)를 바탕으로 무대에 올랐다.

사할린, 오펜부르크 홍수 피해자를 위한 지원수집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알타이르 청년 공
간은 오펜부르크 주의 홍수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수집소를 열었다.

수집은 전 러시아 캠페인 "#우리함께"
의 일환으로, 사할린 주민들은 가정용품,
개인 위생용품, 식품, 침구류 등 홍수 구호
물품을 가져올 수 있다. 재고가 있는 상자
에 담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다.

물품 수집은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승리의 날 관련 통계

승리의 날은 조국을 지킨 사람들의 영웅심, 용기를 상징하는 날이다. 후손들의 마음속에 영웅들의 기억이 소중히 간직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위대한 조국 전쟁이 시작되기 전, 사할린 북부에는 117,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카라후토 현'으로 불렸던 사할린의 남부는 일본의 일부였다. 카라후토에는 일본인 약 36만 명, 한국인 2만 3천 명 등 총 약 40만 명이 살았다. 러시아인 인구는 약 400명이었다.

사할린이 러시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1941년 6월 22일 저녁에 대조국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부 사할린에서 붉은 군대로의 동원은 시작되었다. 1만 명이 넘는 사할린 사람들이 전선으로 갔었다. 후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노동 전선에서 승리를 위해 노력했다.

1940년까지 31,000여명이 이 지역 경제에 종사했다. 10,000명이 산업, 2,400 명이 농업, 3,000명이 운송, 2,300명이 건설, 3,300명이 무역, 요식업, 물류 및 판매, 5,100명이 사회 분야에서 일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에서는 240만 톤의 석유가 생산되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조건에서 1942년 10월까지 단기간에 오하 - 콤포몰스크-나-아무레 간 석유관을 건설했다. 사할린의 광부들은 위대한 조국 전쟁 기간 동안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1941년에만 이들은 687,000 톤의 석탄을 국가에 제공했다. 전쟁 시에 사할린에는 20개의 수산물공장과 염장 탱크들이 어류 16,2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5개 기지, 2개의 조선 공장, 목재포장단지, 목재 공장 및 합대 수리 작업장이 가동되었다. 사할린에는 20개의 수산물 공장과 162,000마리의 어류를 저장하는 염장 탱크가 있는 5개의 기지, 2개의 조선 공장, 목재 공장, 목재 공장 및 선박 수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1억 kg가 넘는 어류가 사할린에서 전선과 산업 중심지로 운송되었다. 위대한 조국 전쟁 동안 섬의 북쪽은 후방에 남아있었다.

이 수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 지역의 공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위대한 애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 민족의 위업이자 영광이며, 우리는 그 기억을 신성하게 기린다.

(사할린주통계청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 김나지아, 추념의 벽 제막

전승 79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 김나지아에서 대조국 전쟁 영웅들을 기리는 추념의 벽 제막식이 있었다.

추념의 벽은 평화를 위해, 대조국 전쟁터에서 전사한 참전용사,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행사는 위올레타 이와시나 학생의 로베르트 로즈데스트벤스키의 '무자비한 작은 지구 위에서'라는 시 낭송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관리국 국장, 안드레이 푸겐피로프 러시아 불멸연대 사할린 지역본부장, 아나스타시아 이와노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 김나지아 교장 등이 대조국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역사 기억 지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1분간 묵도하며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들을 기렸다. 학생들은 노래 '불멸의 연대'를 불렀고, 울다세바 디노라는 학생은 시 '어린이 신발'을 낭송했다.

추모의 벽이 열린 자리에서는 전쟁 당시의 참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대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게 많은 영웅들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목숨을 바쳤고, 우리는 그들의 공적을 기억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

(취재: 글/사할린 국립대 알렉산드라 코알로바, 다리야 워로비요바 학생들, 사진/이예식 기자)



사할린 주, 특별 군사 작전지 장비 전달 (1면의 계속)

이전 배송에서는 섬 전투기들에 국산 SUV와 대드론 소총을 보냈다. 다음 배송에는 이동식 안티드론 시스템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차량 이동의 안전을 보장한다.

동원된 사람들과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섬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었다. 교육 기관, 스포츠, 청소년 및 공공 기관의 학생, 정당, 기업가 및 상품 생산자, 국가 구조, 입법 및 행정 당국 등 모든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최전선에서 수집하고 있다.

여성들은 따뜻한 옷을 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학생과 유치원생은 편지를 쓰고 엽서를 그리고 부적을 만든다. 편지를 통해 군인들은 동료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얻는다. 군인들은 자신과 그들의 대의를 믿어준 동료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특별 군사 작전이 시작된 2022년부터 사할린 주지사 월레리 리마렌코는 이 지역의 "소프리카스트노스프"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할린 지역에서 징집된 군인들은 친척으로부터 소포를 받을 수 있다.

이모저모

사할린 로봇 공학자들, 전국 대회 "러시아 엔지니어링 인력" 우승

사할린 학생들이 전 러시아 경연 대회 "러시아의 공학 인력"에서 수상했다. 이는 사할린 주 교육 품질 평가 지역 센터의 홍보실을 통해 보도되었다.

'유즈니' IT컵의 '큐빅스' 팀은 이 지적 경연에 참여했다.

"첼랴빈스크시에서 5월 3-4일에 열린 러시아 대회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인력'에 러시아 연방과 벨로루시 공화국의 650 명의 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참석한 가운데 '유즈니' IT컵의 '큐빅스'팀이 '이카르테크노(IKaR-Techno)'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робототехники выиграл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испытаниях участвовала команда «Кубиксы» IT-куба «Южный».

«Команда «Кубиксы» IT-куба «Южный»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в номинации «ИКаР-Техно», проходившем 3-4 мая в городе Челябинск,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650 школьников и дошкольников из РФ 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사할린여주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전시박람회에서 "북쪽에 대한 충성 위해!" 메달 수상

노글리키 구역 주민 웨로니카 오시포와가 제19회 국제전시회 "북쪽의 보물 - 러시아의 거장과 예술가"에서 "북쪽에 대한 충성을 위해!"메달을 수상했다고 "즈나야 트루다(노동의 깃발)" 신문이 보도했다.

전시회의 문화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모스크바의 엑스포센터에서 열렸다. 북쪽,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20개 지역 대표 약 600명이 참석했다.

"제19회 국제 전시 박람회 '북쪽의 보물'에서 우리 동향인 예술가 웨로니카 오시포와가 '북쪽에 대한 충성을 위해!' 메달을 받았다."라고 기사에서 언급했다.

전시박람회의 일환으로 북방 소수민족의 요리 마스터 클래스,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의 문화 유산을 관객에게 선보이

는 공연이 진행되었다. 박람회에는 대가들의 공예품, 모피 제품, 인형, 부적, 기념품, 차, 풀, 꿀 등이 전시되었다.

Сахалинку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ью «За верность Север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ярмарке в Москве

Жительница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Вероника Осипова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За верность Северу!» на XIX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ярмарке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 Мастера и художники России 2024».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газете «Знамя труда».

Культурная и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выставки состоялась в Экспоцентре в Москве. В ней участвовали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 представители 20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XIX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ярмарке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нашу землячку, художницу Веронику Осипову,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ью «За верность Северу!»,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ки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ыступ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артистов,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и зрителям св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На ярмарк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зделия из меха, куклы, обереги, сувенирная продукция, чай, травы, мед.

유즈노사할린스크, 야외 체육 수업 시즌 오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아나톨리츠부터의 건강"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야외 운동 수업의 일곱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다. 사할린 주 스포츠부 보도국이 이에 대해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에 시작되었다. 수업은 평일에는 롤러스키테크 근처에서, 일요일에는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에서 06:00 및 18:30에 진행된다.

"개막행사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무료 티셔츠와 모자, 단백질 바, 죽, 차, 이벤트 파트너의 경품 추첨, 댄스 스튜디오 '아라베스크'의 공연, 서핑 학교 '이슬란더스쿨(ISLANDER SCHOOL)'의 마스터 클래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도국이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сезон физкультурных занятий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седьмой сезон физкультурных занятий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Здоровье от Анатолич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стал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еще в 2018 году.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каждый будний день в 06:00 и 18:30 на площадке у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ы, а также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 открытии всех пришедших ждали бесплатные

футболки и кепки, протеиновые батончики, каша, чай, а также розыгрыш призов от партне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ление студии танца «Арабеск» и мастер-класс от школы серфинга ISLANDER SCHOOL»,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사할린 파워리프터,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회에서 동메달 획득

돌린스크 출신의 선수 막심 블린니코프가 전 러시아 파워리프팅 경기 "모스크바의 빛"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사할린 주 스포츠부의 보도부에서 보도했다.

러시아 수도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막심은 최대 66킬로그램의 체급에 출전했다. 그는 동메달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스포츠 마스터의 기준을 뛰어 넘었다.

"바벨 스쿼트 200kg. 벤치 프레스 117.5kg. 벤치 프레스 212.5kg. 철인 3 종 경기의 합계가 530kg였다. 막심과 그의 코치 엘리아르 브라긴에게 축하를 전하는 바이다!"라고 보도문에 언급했다.

운동선수 코치는 "말리쉬(꼬마)" 유치원에서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심어준다.

Сахалинский пауэрлифтер взял бронзу на турнире в Москве

Спортсмен из Долинска Максим Блинников заработал третье место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турнире по пауэрлифтингу «Огни Москв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ящие в столице России, съехалось более 300 спортсменов с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Максим выступал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66 килограмм. Он не только завоевал бронзу, но и перевыполнил нормати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Приседание со штангой - 200 кг. Жим штанги лёжа - 117,5 кг. Становая тяга - 212,5 кг. Сумма троеборья - 530 кг. Поздравляем Максима и его тренера Эльяра Брагин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Тренер спортсмена работает инструктором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в детском саду «Малыш». Он прививает любовь к спорту всем дошколята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 여름 시즌 개막

5월 4일 (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문화휴식공원에서 여름 시즌의 개막을 알렸다. 주중앙 도시 시민과 손님을 위해 광범위한 문화유형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8면에 계속)

5월 8일 어버이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모임 개최

5월 8일 한국에서 기념하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준비했다.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은 이날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축하인사를 전하며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했다. 그는 이날 후원을 한 가가린 호텔의 정해성·권행자 내외로부터 어르신들에게 금일봉을 전했다.

시한인회 측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공연과 시낭송, 색스폰 연주 등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10세의 김유미 어린이가 한국노래를 불러 어르신들을 미소짓게 했다. 또한 아이들이 이날 노인분들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시한인회의 합창단, 어르신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도 인기가 많았다.

또한 시한인회측에서 노인정 고령자들을 위해 정성껏 마련했다. 건강식 음식, 특히 사할린에서만 볼 수 있는 햇나물이 많았다. 이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랐다.

(배순신 기자)



5세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할린 에트노 강의실"에서 한국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지난 6일(월) 러시아민족지학 박물관의 사할린지부가 추진하는 "사할린 에트노 강의실"기획 일환으로 사할린 역사학자이자 한국학자인 진 율리아 박사의 '한국 전통에서의 육아' 강연이 열렸다. 5월 5일 한국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니 강사가 이 주제를 택했다고 한다.

현대 한국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한국의 대가족은 도시화로 인해 분열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가정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자녀 양육에 반영되어 있다.

세대를 달리하는 대표들이 모여 사는 대가족의 전통 속에는 훌륭한 규범과 규칙, 사람에 대한 상호 존중이 있었다. 진 율리아 박사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은 지식과 경험으로 존경받고, 젊은이들은 그들을 존중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태도의 예로, 사망한 조상들을 기리는 전통적인 의식이 있고, 설날에는 아이들이 조부모, 부모,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 큰 절을 하고 세배를 한다.

5세까지 한국의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이들을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거나, 혼내거나, 막지 않는다. 그리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은 근면과 공부의 길로 떠난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다. 이들은 이미 1학년부터 능숙시범을 생각하고 준비하기 시작한다. 학부모는 원칙적으로 아이의 양육, 학업과 섹션에 전념하기 위해 자주 일을 그만둔다. 이날 강의를 찾아온 사람들은 진 강사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다. 동양교육이 워낙 러시아, 서방 교육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날 '눈치'를 주제로 한 작은 토론도 있었다. 한



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한눈에 보기만 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해하도록 지도했다.

아이들은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러시아인 청취자들은 이에 매우 놀랐는데, 이는 아이에게 그런 정도의 자유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연과 토론은 문화적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진 율리아 강사는 사할린 한인사 연구를 한 학자이며, 역사학 준박사이고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의 과학편집부 부장이다.

"사할린 에트노강의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음 강의는 김찬욱 사할린주 역사기록원 부장이 5월 17일 '소련 사할린의 북방소수민족 원주민'에 대한 주제로 할 예정이다.

(취재 : 사할린국립대학교 코알로바 알렉산드라, 워로비요바 다리야 학생)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시요.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사할린 동포 정착 도움
LH 고향 보금자리 제공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돼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 역사적 아픔을 한평생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살아야만 했던 사할린 동포의 고국 정착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나섰다.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사할린 탄광, 벌목장, 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할린동포들은 독립 이후 일본이 패전하면서 귀향을 꿈꿨지만, 노동력이 필요했던 소련의 반대에 부딪혀 귀국을 하지 못한 채 이들은 사할린에 남겨지게 됐다.

시간이 흘러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정부는 소련과의 친선우호 화평을 도모했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할린 동포를 송환하기 시작했다. 20여년에 걸쳐 고향인 대한민국의 땅을 밟은 사할린 동포는 전체 4만3천여명의 10분의 1가량인 3천500명으로 집계됐다.

LH는 사할린에서 평생을 보낸 우리 동포가 고국인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들이 불편함 없이 대한민국에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안산 고잔1단지 LH 고향마을 아파트를 조성, 다소 낯설 수 있는 한국살이를 동향이자 동포와 함께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80여년 전 떠나면 미국 땅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에 새롭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 주고 있는 LH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를 찾아 평생을 그리던 조국에서의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대한민국에서의 삶,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4월 안산 상록구 고잔1단지 LH 고향마을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내리쬐는 햇빛 속에도 살랑이는 바람을 맞기 위해 단지 내 정자에 모인 이곳 거주민 사할린 동포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간단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또 눈이 닿는 곳마다 쓰여진 러시아어도 이 단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시범 사업지로, LH는 사할린 한인전용아파트를 건립, 지난 2000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489세대 약 760여명의 사할린동포와 동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입주민 배씨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사할린을 거쳐 현재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 뿌리를 내렸다. 1943년 당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좁고 먼 사할린에 강제이주된 배씨는 수십년간 사할린에 살면서도 고향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움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 2000년 66살이라는 지긋한 나이가 돼서야 밝게 된 한국 땅, LH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서 배씨는 두 번째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

배씨처럼 사할린에서 이주해 온 주후춘씨(79)도 한국 땅을 밟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주씨는 2009년 11월6일 한국에 들어와 충북 음성을 거쳐 장모가 살고 있는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안산 상록구 고잔1단지 LH 고향마을 아파트 단지 전경.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가족 같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서로의 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주씨는 4년 전부터 노인회장을 맡아 언어가 서툰 동포를 도우며 지내고 있다. 주씨는 "부모님을 따라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세대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일가친척이 많이 없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할린동포 전용 아파트인 LH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사할린 생활을 했던 이웃들이 있어 동질감이 형성되고 걱정보다 빠르게 녹아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할린에서도 동포 대부분은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며 "가슴 아픈 일제강점기 역사의 희생자인 우리에게 따뜻한 눈길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떠나면 사할린동포에서 이웃이 되기까지

안산 고잔1단지 LH 고향마을 아파트 내부.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LH는 이들처럼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는 총 5천86명이며, 이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3천여명이다. 초기 영주귀국자를 대상으로 펼친 정부의 사할린동포 주거지 지원안은 2021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주비용 및 생활·주거지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LH는 이들의 국내 거주 희망 지역 등을 반영해 2000년부터 시행해 온 임대주택 주거 지원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영주귀국 동포들은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입국 동포들은 전국 각지 거주 예정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운영한다. LH가 20여년간 이들에게 제공한 주거공간은 총 2천169세대에 이른다.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시 중단됐던 '사할린 동포 일시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4년 만에 재개했다.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들은 지난 3월부터 속속 귀향길에 올랐으며, 261명의 동포가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LH 역시 추가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 올해 영주귀국을 신청한 131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연내 모든 세대의 계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икто не забыт, ничто не забыто

2 мая, в честь 79-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о открытие Стены памяти, посвященной героя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тена памяти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тех, кто воевал, но не дождался наших дней, о малоизвестных героях, которые сражались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над нами было мирное небо.

Мероприятие открылось стихотворением Роберта Рождественского «На земле безжалостно маленькой» в исполнении Ивашинной Виолетты. Далее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речами выступили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Захар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Фугенфиров, директор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астасия Иванова.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также прозвучал гим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чащиеся выступили с песней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а Юлдашева Динора прочитал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Детский ботинок».

На открытии Стены памяти прозвучало много слов об ужасах военных дней, о том, какой ценой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победа в кровопролитной войне. Столько героев сложили свои головы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мы жили в мире, поэтому надо помнить об их подвигах и хранить мир любой ценой.



Александра КОВАЛЕ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Фото: Ли Е Сик

О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в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Лекц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торика и корееведа Юлии Дин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в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прошла 6 мая. Она была приурочена к празднику День детей («Орини наль»), который за день до этого отмечали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е произошли большие изменения: больша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распадается из-за урбанизации. Однако зачатки патриархальной семьи сохраняются, отражается это и на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В традициях большой семьи, в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живут вместе, складывались нормы, устои и было взаимное уважение.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ожилых уважают за знания и опыт, и молодежь должна вести себя, выражая почтительность к ним, — отметила Юлия Дин. — Как пример проявления т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новогодние поклоны себа, совершаемые детьми перед дедушками и бабушками, родителями и другими старш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после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рядов поминовения усопших предков.

До 5 лет ребенок в Корее может делать все, что хочет, — его нельзя ни в чем ограничивать, ругать или запрещать что-либо. Далее с 5 до 18 лет дети вступают на путь прилежания и учебы. Готовиться к итоговому экзамену они начинают уже с первого класса. Мать семейства, как правило, оставляет карьеру, чтобы посвятить себя воспитанию ребенка, его учебе и секциям, контролируя каждый его шаг. Именно тезис о «вседозволенности» до 5-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вызвал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вопросов у аудитории



— ведь такой подход идет вразрез с воспитанием русских детей. Тем не менее, диалог в аудитории получился интересным и полемичным.

Юлия Дин —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заведующая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ым отдел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автор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Следующую лекцию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 советском Сахалине» 17 мая прочитает Ким Чан Ок,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ом информации, публикации и науч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окументов ГИАССО.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й ЭтноЛекторий» был запущен в 2023 году Российским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м музеем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Это публичная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площадка, где в течение года российские ученые читают лекции по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истории и фольклористике для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9 мая - День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Хан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Родился 16 апреля 1922 г. в д. Тизинхэ Никольск-Уссурийского уезда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 1933 г. - воспитанник детского дома г. Имана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С 1936 г. - воспитанник войсковой части г. Имана. С осени 1939 г. - в рядах РККА, курсант Киевского военного училища связи им. Капанина.

С июня 1941 г. по февраль 1942 г. сражался на Юго-Западном фронте. В конце 1941 г. контужен. С февраля 1942 г. - в составе Московской флотилии. С 1945 г. - юнга КБФ в Кронштадте.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 ст. (1985), медалями "За боевые заслуги" (1951), "За победу над Германией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Участник Парада Победы 24 июня 1945 г. в



Курсант Высшего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училища им. М.В. Фрунзе С.А. Хан
г. Ленинград. 1947 г.

Москве.

С мая 1947 г. - курсант Высшего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училища им. М.В. Фрунзе (г. Ленинград). С 1949 г. - в составе КБФ. Демобилизован в октябре 1950 г. в звании мичмана ВМФ.

Член ВКП (б) с 1948 г. В 1952 г. окончил 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А.А. Жданов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 "история зарубежного Востока".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Работал младшим научным сотрудником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Н СССР, старшим библиографом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убли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 В.И. Ленина, старшим научным сотрудни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С 1969 г. -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Был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1990 г.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учредите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сесоюзной Ассоци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АСК).

Умер 11 мая 1990 г. Похоронен на Домодедовском кладбище г. Москвы.

Победа, одна на всех

Я перелистываю страницы тоненького «Личного листка по учету кадров» и беседую с вдовой Сергея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Хана Ираидой Васильевной. «Нет, нет. Никаких интервью. Здесь все написано. Ничего добавлять не нужно. Вы должны сказать тольк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он с самого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делал себя сам и всю свою жизнь надеялся только на свои силы, никто ему не помогал».

Из личного листка: «Я, Хан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родился в 1922 году в с. Тизинхе, Хаса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семье крестьянина-бедняка. Мать — Хегай Анна 1880 г. рождения, умерла в 1929 г. Отец — Хан Александр 1860 г. рождения, умер в 1932 г. С 1933 по 1935 г. я находился в детдоме г. Иман,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 1935 г. до осени 1939 г. был воспитанником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ой Красной Армии...»

Ираида Васильевна: «Когда умерли родители, он сначала попал в семью старшей сестры, которая жила тоже очень тяжело. Отдали в детдом. Оттуда он бежал и неведомыми путями добрался до Украины. Его подбирает там какая-то воинская часть, Сергей становится сыном полка, потом служит в 5-й Московской танковой бригаде...»

«С осени 1939 г. до конца 1950 г. служил в рядах Сухопутных и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на Юго-Западном фрон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две медали «За боевые заслуги», медаль «За победу над Германией» и другие. Воинское звание: мичман. Состав: командный. Род войск: Военно-морские силы...»

«О войне, о фронтовой жизни он никогда не вспоминал и не рассказывал. Видимо, это были настолько тяже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что говорить ему просто не хотелось. Муж был не из тех, кто спекулировал на военном прошлом, никогда не важничал своими боевыми наградами. Вы знаете, ведь он участник Парада Победы, вот удостоверение. Сергей нам никогда не говорил даже об этом.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его крепко связывало с прошлым — это однополчане. Они встречались в День Победы. 11 мая 1990 года он умер. К нему приезжал однополчанин. Один. С каждым годом их становилось меньше... А на флот он пошел уже после войны. Поступил в Ленинграде в Высшее мореходное училище. Почему пошел? Наверное,

мечтал. Представляете, однажды, спустя много лет, он в великолепной форме морского офицера навестил в далеком Казахстане свою старшую сестру, которую не видел с детства. Вот была встреча!..»

«С конца 1947 г. по июнь 1952 г. учился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аспирантуре АН СССР. После чего до осени 1964 г. работал младшим научным сотрудником а этой системе. 1964–69 гг. —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С 1969 г. —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Генштаба МО СССР...»

«Из флота ему пришлось уйти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ведь он был контужен, болел, зрение стало слабнуть. И тогда он поступает в Ленингра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на 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Вы представляете, уже 25 лет, за плечами война, а тут надо начинать с нуля, сидеть за партией со вчерашними школьниками. И здесь ему никто не помогал. Как он жил, чем питался? Сколько же надо было иметь желания учиться! Он не просто учился, а выучил коре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и! Разговаривал и даже переводчиком выступал. Университет он закончил с пятерками и четверками. Надо учесть, что муж был не столичный продвинутый отличник, а нацмен, как тогда говорили, из глухого корейского села. Сразу после университета он поступает в аспирантуру, успешно защищает кандидат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И начинается у него друг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 ученого-исследователя. Он много пишет о Корее, о корейцах — участниках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о войне 1950–1953 гг., о Вьетнаме, Китае. Конечно же война не могла не отложиться на его характере. Он был прямолинеен, из-за чего много терял. Не понимал, что не всегда надо правду в глаза говорить.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н работал в Институте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Генштаба МО СССР.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 на 1-м учредительном съезде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Люди его поколения с горячей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стью и обостренным чувством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только и могли победить в войне, а затем одерживать победу в мирной жизни».

В. Цой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2001. № 14.
(Из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авторы Д.В.Шин, Б.Д.Пак, В.В.Цой)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вёл мероприятие по случаю Дня детей

5 мая, когда в РК отмечался День детей,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пригласил 360 детей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 бывшую президентскую резиденцию Чхонвадэ в Сеул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реди приглашённых были дет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из сельских районов, а также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 приёмные дети. «Любая встреча с детьми меня приятно волнует. Хотел бы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одителям, педагогам и персоналу дет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за их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то, чтобы помочь детям вырасти счастливыми и здоровым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глашённые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дет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таких как приготовление полезных перекусов и обучение грумингу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Президент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изготовил рамку для фотографии, используя в качестве отделочных украшений растения, очищающие воздух, а также посмотрел шоу мыльных пузырей.

Пхеньян сносит строения у северных ворот Кэсон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снос строений у въездов в Кэсонски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е были постро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Как сообщила радиостанция «Голос Америки» со ссылкой на спутниковые снимк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частной компанией Planet Labs, исчезли крыша над северными воротами комплекса и строение, находившееся ряд с ними. Анализ более ранних фотографий позволяет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активный снос строений у въездов в Кэсонский комплекс продолжается с 13 марта. Ранее радиостанция «Голос Америки» сообщила о сносе здания у южных ворот комплекса. Кэсонски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называли символо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примирения. В нём работали филиалы порядка 12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 которых были заняты более 54 тысяч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Комплекс был закрыт в феврале 2016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ответ на испытания Пхеньяно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Президент РК обещает увеличить базовую пенсию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одтвердил своё предвыборное обязательство увеличить ежемесячное базовое пенсионное пособие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Выступая 3 м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посвящённой Дню родителе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он часто думает, «не забываем ли мы ценить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Он также подтвердил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лучшению жизн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утём создания рабочих мест и повышени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Президент обещал расширить перечень услуг по уходу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уменьшив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плату. Одной из 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вляется увеличение ежемесячного базового пенсионного пособия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с 320 тысяч до 400 тысяч вон (292 долла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сит больницы уменьшить ущерб пациентам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обратилось к многопрофильным больницам с просьбой разработать меры по минимизации ущерба пациентам. Он может усугубиться из-за того, что ведущие врачи предприняли коллективные действия в поддержку забастовки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протестующих против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больниц подтвердила,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просило руководителей больниц принять ме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ациент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ационарах, бесперебойное лечение, когда ведущие врачи берут выходные дни. Начиная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ведущие врачи начали брать выходные дни, отменяя плановые операции и амбулаторный приём из-за усталости, вызванной длительным отсутствием на работе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РК и Франция готовятся к Париж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Олимпиаде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Ю Ин Чхон встретился 2 ма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Париже с куратором Париж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Олимпиады Домиником Эрвье. Министр напомнил, что РК начинает проект «Корейские сезоны-2024», нацеленный на знакомство франкоузов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 течение полугода 3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всей Франции. Доминик Эрвье отметил, что предстоящая Олимпиада впервые совмещает спортив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ы.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каждая страна покажет богатство своих культур и традиций. Парижская Культурная Олимпиад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еред Летними О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в период с 20 мая по 20 июля. Всего запланированы 2300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ов, доступ к 82% из которых будет бесплатным. Доминик Эрвье отметил, что корейская поп-культура очень популярна во Фра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обязали отчитаться о походах с женой в кино и рестораны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Сеула поддержал решение суда более низкой инстанции, который обязал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я раскрыть точное содержание расходов, которые политик в 2022 году, после своей победы на выборах, потратил на походы с супругой в кино и рестораны.

Если говорить точнее, то суд предписал, чтобы Юн Сок Ёль сообщил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колько он потратил на просмотр кино с женой Ким Гон Хи 12 июня 2022 года, а также на что ушли 4,5 миллиона вон (около 3256 долларов США), которые он, как считается, потратил на ужин в дорогом ресторане Сеула 13 мая 2022 год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ле иска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которые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сколько именно денег потратил на упомянутые пуб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лидер страны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ихода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Данные события достаточно широко освещались в

прессе и были призваны создать имидж близкого к народу "обычного" политик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до сих пор отказывалась раскрыть содержание расходов, что и заставило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обратиться в суд. В постановлении суда говорится, что он св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 на основании законного интереса со стороны обычных избирателей, а также с учетом решений по поводу аналогичных исков в прошлом.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к жене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Ким Гон Хи постоянно приковано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учитывая противоречивые слухи по поводу ее прошлого, а также ее стремления вести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днако, когда это стало вызывать очевидное раздражение у большинства корейцев и провоцировать даже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скандалы, то Ким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тила свою публич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не возобновила ее до сих по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дружился с хакерами

Сеул, 3 мая – ИА РУСКОР

В сегодняшнем динамично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ландшафте наступление «эры устройств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меняет домашние хозяйства по всему миру. От холодильников до кондиционеров бытовая техника повседнев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теперь оснащена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обеспечивающими персонализированный опы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пользователем. Однако этот всплеск подключения вызвал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утечек данных, таких как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зображений, сделанных роботом-пылесосом,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 ответ на эти вызов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усиливают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данных. Например, Samsung Electronics использует свою платформу безопасности Knox, использующую технологию блокчейн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подключенных устройств и обеспечения целостности данных. Аналогичным образом LG Electronics шифрует общие данные и управляет ими с помощью строгих протоколов, защищая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как сведения об установке продукта и схемах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ажность безопасност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расширением рынка. П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компании MarketsandMarkets, мировой рынок безопасности Ин-

тернета вещей, по прогнозам, вырастет с 20,9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в 2022 году до 59,2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к 2028 году со среднегодовыми темпами роста 23,1 процента.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растущий спрос, существует значительная нехватка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особенно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о данным Google Cloud, нехватка персонала по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включая Южную Корею, достигла 2,16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что является тревож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500 000 в США и 300 000 в Европе.

Признавая этот пробел, LG Electronics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Корей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учредила «Направление LG Cyber Security Track» в магис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е Школы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а инициатив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азвитие таланто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удовлетворяя острую потребность в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ах по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в индустри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Инсайде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индустри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о мере развития эры устройств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требуются более строгие стандарты для всего процесса сбора, хранения, обработки и уничтожения данных клиентов», добавив: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основанные на нем «умные дома» невозможны без безопасност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поддержат материально

Сеул, 6 мая – ИА РУСКОР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е много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8 лет с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начиная с мая по сентябрь, примерно в 230 семейных центрах по всей Южной Коре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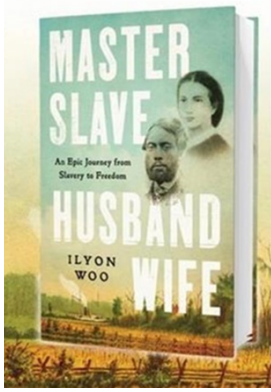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гендерного равенства и семьи объявило, что оно запускает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поддержк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зарабатывают меньше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и. Средний доход — это показатель, используемый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средней точк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доходов в стран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3 год средний доход семей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составлял 5,4 миллиона вон (3900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Размер поддержки зависит от возраста: 400 000 вон в год для учащихся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500 000 вон для учащихся средней школы и 600 000 вон для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Фонд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 для таких расходов, как покупка учебников и посещение учебных кабинетов или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ма-

териалов дл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а также для оплаты сборов, взимаемых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определен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не посещают школу, также имеют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поддержк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озрастом.

Пилот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етя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с адаптацией к школе или обучению. Оплат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начислением баллов, которыми семья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 помощью карты NongHyup. Период выплаты зависит от времен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первый платеж должен поступить в июле, а два других — в сентябре и октябре. «Мы продолжим усиливать поддержку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чтобы сократить разрыв в образовании с их сверстниками,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расти как будущие таланты», — сказал Шин Ен Сук,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о гендерным вопросам.

Писательница из США У Иль Ён - лауреат Пулитцеровской премии

Книга американ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У Иль Ён «Хозяин-раб, муж-жена: эпичес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от рабства к свободе» удостоена



Пулитцеровской премии 2024 года в категории биограф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произведении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молодой паре рабов, которая в 1848 году бежит из штата Джорджия в свободные северные регионы США. У Иль Ён, родители которой переехали из РК в США, получила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к в Йель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 степень доктора в област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олумби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улитцеровская премия, учрежденная газетным магнатом Джозефом Пулитцером, вручается ежегодно с 1917 года в первый понедельник мая в Колумби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Нью-Йорке за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зданные американскими авторами в областях журналистики, литературы, музыки и театра.

KBS World

한인 차세대들 "한국 발전상 거주국에 알리겠다"

19개국 68명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서 결의 4일 일정 폐막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68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는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30일부터 '함께 만드는 미래! 하나 되는 세계한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최한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했다.

세계한인차세대 대회는 4.30 개최된 개회식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둘째 날 국무총리 공관 방문, 산업시찰과 전통문화체험, 셋째 날 주제별 토론, 대회 마지막 날인 5.3에는 '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 '통일정책 설명회', 토론결과 발표 및 폐회식 행사로 막을 내렸다.

이기철 청장은 기조강연에서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것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이라는 재외동포 정책의 두 개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면서 차세대 리더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 손톱 및 가시를 빼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현장과 민생 중심의 재외동포청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어 교육과 모국 초청의 기회를 넓히고 더 탄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재외동포가 고국에 자긍심을 갖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명예와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국가인재 DB '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에는 안보홍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이 참석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국가인재로 유치해 한국 정부와 공공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 황태희 통일부 국제협력국장은 '통일정책 설명회'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치러진 폐회식에 앞서 그동안 논의해 의견을 모은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지난 60년간 정치·경제 발전상에 대한 강연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해 개인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를 포함한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책사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거주국에 돌아가 현지 조력자를 발굴하고 차세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뜻을 모았다.

한인 차세대들은 차세대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하반기 지역별 차세대대회(리 유니온) 등을 열어 재외동포청의 차세대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폐막 환송사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차세대 한인 리더를 응원하며, 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한인 차세대들이 우리 정부의 주요 재외동포 정책을 이해하고, 한인 정체성 함양과 함께 각 지역의 차세대 동포간의 소통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한다.

(재외동포청 제공)

세언협, 휘인조지현 전통음식연구소와 MOU 한국 전통음식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을 전통음식, 휘인조지현 연구소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제24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를 진행중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세언협)는 맛의 본고장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휘인조지현 전통음식연구소와 5월 2일 오후 5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언협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휘인조지현 전통음식연구소가 한식 연구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전통음식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 언론인 초청 행사로 세언협은 해외 언론인들을 휘인조지현 전통음식연구소에 초청하여 전통음식 체험, 연구소 시설 관람 등을 통해 전통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양측은 전통음식의 역사, 문화, 건강 효능 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김명곤 세언협 회장은 "한국 전통음식은 건강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전통음식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휘인조지현 전통음식연구소 조지현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깊은 맛과 문화를 전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음식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음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세언협 공동취재단)/
사진 : 손정호 김민식 기자

사할린 동포 정착 도움 내 고향 보금자리 제공

(3편의 계속)

■ 단순 주거지가 아닌 공동체 마 음이 되기까지

안산 LH고향마을 아파트 단지는 사할린동포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있다.

우선 LH는 고령인 거주자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아파트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넓게 설계했으며 손잡이를 설치, 거동이 불편한 거주민이 보다 편한 이동이 가능도록 했으며 주거공간은 전용면적 49㎡에 방을 1개 내지 2개로 구성해 1인 또는 소규모 가족이 머물기에 적당하다. 게시판에는 모든 공지사항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기재돼 있어 우리말이 서툰 동포를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또 LH는 지난 2022년 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 공용공간인 체력단련실과 노인정의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 고령자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민 연령 등을 고려한 안마용품, 재활·일반운동기구를 교체했다.

안산 고잔동 사할린동포 전용 아파트인 고향마을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고향마을 복지관 제

공 이와 함께 단지 내에 영주 귀국자들의 생활을 돕는 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와 각종 설비를 갖춘 복지 시설, 강당 등 사할린동포 맞춤형 프로그램과 시설이 구비돼 있어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다. 그중에서도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한국역사 교육 등은 사할린동포가 마음의 고향인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LH는 가천대와 협업해 운동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H 임직원이 단지에 방문해 오래된 벽면 도색 작업을 진행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사할린동포들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조국에 돌아와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거안정을 돕겠다. 또한 곳곳에서 주거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4, 이재민 기자)
(출처: 경기일보)

750만 재외동포들의 도전과 혁신을 이끄는 '동포저널'을 창간하며

해외 한인언론인들의 최대 연합단체인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동포저널>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기존의 협회 홈페이지인 <오케이 뉴스>(OK NEWS, www.okja.org)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명실공히 재외언론인 단체의 공식 인터넷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재외언론은 이제 새로운 언론환경에서 도전적인 과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들과 유튜브 채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에 휘말리면서 재정적 위기는 물론 언론 본연의 역할은 퇴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언론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750만 재외동포들의 연결망인 <동포저널>이 '도전'과 '혁신'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창간을 하게 된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는 각별한 도전 정신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혁신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향한 성찰과 도전이 앞서야만 합니다. 언론인 스스로의 도덕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한국언론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기교'가 아닌 '정신'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끊임 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언론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언론 본연의 역할인 진실추구를 위한 각오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팩트(fact)'에 현혹되거나 만족하지 않고 '진실(truth)'을 캐내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각별하게 요구됩니다. 진실은 속성상 은폐의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추구를 위해서는 일말의 책임감과 부채의식을 가진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

하 진행 중인 흑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반성과 진실추구라는 숙제를 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적 갈등과 고통은 물론이고, 생존의 위기를 맞을 정도의 물질적 손해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곧은 정신으로 씨름하다 보면 신뢰도가 확보되고 750만 재외동포들의 연결망은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폭넓게 엮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왕에도 재외언론은 동포들의 연결망 구성에 직,간접으로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재외언론은 100여년 이상 동안 두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정체성 유지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땀을 흘리고 있는 케이 컬처(k-culture) 파워도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포들이 차별이나 부당 대우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재외동포 참정권, 이중국적 문제, 동포청 설립 등과 같은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 모국의 재난을 돕거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우주적 재난에 대처하는데에도 의제 설정을 주도해 왔습니다.

동포들의 주류사회 정착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질적인 타 문화권에 새 구성원들이 들어왔을 때 겪게될 문화적 충격과 괴리감을 해소시켜서 무리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성하고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동포저널>을 통해 새롭게 엮여질 750만 재외동포들의 연결망이 동포사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융성.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조국의 성취를 위해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4월 16일
<동포저널> 발행인 김명곤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살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 그룹인 "발레트 밴드 (Bullet Band)"와 "세즈마야 바자 사할리나(사할린의 7번째 기지)" 공연으로 콘서트장은 뜨거운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날 공원 내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 창작 워크숍, 박람회, 전시회 및 추첨이 열렸다. 또한 주최 측은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 오락 프로그램과 추첨을 통한 인터랙티브 플랫폼을 준비했다.

어른들을 위한 즐길 거리도 많았다. 다양한 대화, 음악 및 댄스 모임이 열렸다. "멜로디야 워디(물의 멜로디)" 분수의 스타트로 여름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летний сезон

В субботу, 4 мая,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о открытие летнего сезона. Для горожан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дготовили обширную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Несмотря на прохладную погоду, на концертной площадке было жарко и празднично от выступлений мест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групп Bullet Band и «Седьмая база Сахалин».

В этот день на разных площадках парка прошли концерты,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ярмарка, выставки и розыгрыши. А для юных посетител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атформы с игров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и лотереями.

Было чем позабавиться и взрослым. Для них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зли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музыкальные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встречи. А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уск фонтана «Мелодия воды» ознаменовал старт летнего сезона.

#2024-우리함께 국제상 참가신청 시작

사할린주의 활동적인 시민들과 섬 일대에서 사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또 한 번 #우리함께 국제상 대회에 응모할 수 있다. 대통령 배로 시작된 이 이니셔티브는

전국적으로 11개의 주요 카테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각 지역이 최고의 개인 또는 단체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전국 단위의 대중 투표에 올린다. 우승자들에게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상을 수여한다.

2024 우리함께 국제상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신청접수는 이미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6월 3일까지 계속된다. 프로젝트 선정의 주요 기준은 프로젝트의 사회적 중요성이다.

이 대회는 후보자 그룹에 따라 '개인'(14세 이상 개인), '조직'(법인 및 자원봉사 팀), '지역'(러시아 연방 주체, 단일 도시 및 지방 자치체)의 세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 범주로 나뉜다. 기획은 11개 부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즉 "올해의 멘토", "올해의 자원봉사자", "사람들 돕기", "기회의 나라", "삶을 위한 터전", "서비스 학습", "우리함께-러시아", "사회적 기업가", "책임 있는 비즈니스", "지방 자치체", "러시아 연방의 주체". 또한, 이 대회 일환으로 특별 부문 "올해의 행위"가 새로 생겼다. 누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남긴 국민 또는 체계적으로 자원 봉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등록이 마감된 후 6월 28일까지 참가자들의 신청서는 기술 전문 심사를 거치게 된다.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별 기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선에 진출할 프로젝트가 선정된다. 10월 2일에는 Добро.рф 플랫폼에서 최고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중 투표가 시작되며, 11월 10일까지 심사위원단이 수상자를 선정한다.

공식 시상식은 12월 5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국제 시민 참여 포럼 #우리함께에서 열리며, 최우수 이니셔티브의 저자들은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Начался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емии #МЫВМЕСТЕ-2024

Активные гражда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воплощают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на островах, вновь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емии #МЫВМЕСТЕ. Инициатива, запущенная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ыявляет самые важ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идеи в 11 основных номинация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Каждый регион выбирает лучшие авторские и коллективные проекты, а затем их представляют для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Победителей премии награждает президент РФ.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первый этап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емии #МЫВМЕСТЕ-2024 уже стартовал. Кампания продлится до 3 июня включительно. Основным критерий приема проектов на отбор — его общественная значимость.

В конкурс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три основных категории инициати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уппами номинантов — «Личность» (для физических лиц старше 14 лет), «Организация» (для юрлиц и добровольческих команд), «Регион» (для субъектов РФ, моногородов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роекты должн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одной из 11 номинаций: «Наставник года», «Волонтер года», «Помощь людям»,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Территория для жизни», «Обучение служением», «МЫВМЕСТЕ — Россия», «Соци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Ответ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Муницип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убъек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роме этого, в рамках премии открыта специальная номинация «Поступок года». Сюда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номинировать свое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совершившего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й поступок или работающего в сфере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на системном уровне.

После закрытия регистрации до 28 июня включительно заявк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йдут техническую экспертизу. С 8 июля по 5 августа пройд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отбор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финал премии. 2 октября стартует народ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лучшие инициативы на платформе Добро.рф, а до 10 ноября члены жюри премии выберут лауреатов.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ится 5 декабря в Москв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гражданского участия #МЫВМЕСТЕ: авторы лучших инициатив встретят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а!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нса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АССРОЧКА

Берега 2

Лужники

М2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среда 16-00
Фактически - среда 17-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